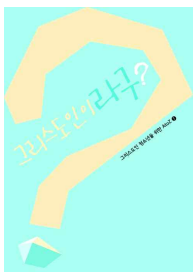




첫번째 이야기

콜롬비아..., 라구?

[겨울특강 후기- 라구 세미나]



V자형 테이블에 앉은 10여 명의 참여자들의 '오순도순', 한 권사님의 '약자지깅'이 어우러지는 세미나이다. 선교사님 부부, 목사님, 집사님... 다들 차세대 어린이 선교에 관심 깊은 분들이 모였다. 어린이들 수준의 교재를 공부하러 모인 이유는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대답하고 가르치면서 어린이가 되어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이의 마음으로 교재를 체험하고 교안을 준비하는 교수기술을 공부한다. 그러다 보니 나이를 거꾸로 먹는 질문들이 나오고 희한한 대답이 나온다. 우습다. 재밌다. 스페인어 교재에서는 '라구'를 'serio?'라고 한다. '정말?', 'real?'이란 뜻이다.

콜롬비아(Colombia)의 라과히라(la guajira)는 '라구?'가 필요한 땅이다. 라과히라는 지난 5년간 4천 명의 어린이가 기아로 사망한 곳이다. 생존한 어린이들도 영양부족으로 인해 키와 몸이 매우 작다. 수돗물이 일주일 중 목요일 저녁에만 공급되는데 모든 사람이 밤새도록 줄을 서서 집안의 그릇에 물을 받아 한 주간 아껴서 사용한다. 대부분 집은 양철과 천으로 엮었고 철조망이 담장이다. 도로포장이 전혀 안 된 모래땅 위에서 카리브해의 바람은 항상 먼지를 일으킨다. 아빠는 쓰레기를 줍고 엄마는 운 좋으면

하루 청소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반 이상은 홀로 맘이 3~5명의 아이를 양육한다.

이곳의 아이들은 TV를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다. 팬데믹 중에는 와이파이 지불할 돈이 없어서 비대면 수업을 2년간 못 했다. 그러다 보니 '꿈들의 집(casa de sueños 까사 데 수에노스)' 학교는 인기가 많다. 사실 선물만 주면 500명도 쉽게 모은다. 그러나 공부와 수업에 열정이 있는 학생들만 가려서 100명이다.



현지인 목회자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일 구하기도 힘들고 헌금이 거의 없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곳은 영과 육의 배고픔이 함께 있는 땅이다. 실제 이곳은 중남미에서 보기 힘든 사막 지역이다. 아자수는 없고 선인장이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가 더욱 필요하다. 가난한 지역이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가 필요한 곳인데 너무 가난한 지역이어서인지 선교사가 없어서, 이곳에서 살며 선교한다. 이곳에는 구원받아야 할 100만 명의 사람들과 학교 주변에 수천 명의 어린이가 있다.

교육 목적은 가난의 세습을 끊는 기독교인 사회 지도자가 되도록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이다.

구호 사역도 귀하지만 나누어 주는 것은 그때뿐이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습관과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



‘꿈들의 집’ 학교는 학생 100여 명에게 산수와 스페인어, 성경과 찬양을 가르치는 무료 기독교 학원이다. 야학이라고나 할까... 모든 교사, 급식, 운영비는 기도하며 주님께 지원받는다. 배고픈 적은 없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많다. 무표정한 아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웃음을 전달하고 싶다. ‘라구?’를 통해서... ‘라구?’는 ‘꿈들의 학교’에서 시작하지만 BEE 세미나에 적극적인 목회자가 담당하는 교회에 우선하여 보급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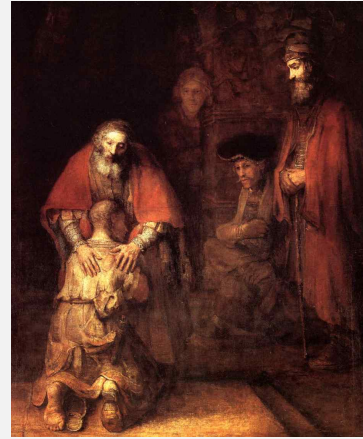
[글쓴이 박재현 정은실 선교사]



두 선교사는 각각 국제 학교와 아동복 디자인실에서 일하며 안산 M센터에서 봉사하다 만나 결혼했다. 현재 2016년 인구 대비(5천만) 한인 선교사가 가장 적은(7가정) 남미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버스로 23시간, 최북단 라과히라(la guajira)에서 사역하고 있다. 라과히라에는 미전도 종족 100만 명과 중남미 최대의 ‘이슬람’ 포교센터가 있으며 5년간 4천 명 기아가 사망한 최대 빈민 지역이다. 1980년 이후 40년간 선교사가 없었던 곳이기에 선교 의의가 있다. 사는 것은 힘들지만 선교의 필요성과 효과는 많다. 코로나 감염률이 거의 100%이어서 한번 앓기도 했으나 계속 교실을 건축하며 어린이 사역을 했고, 작년 말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하고 잠시 귀국했다. 3월 4일 사전 투표하고 저녁에 출국한다.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그림 속 His-story



탕자의 귀환

(1669, 렘브란트 262x206 캔버스 유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말년의 미완성 작품으로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과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다. 회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지만 렘브란트의 그림은 보다 복잡하다. 돌아오는 아들을 달려가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두드러지기보다는 처참한 행색의 아들을, 자세를 낮추어 안아주는 아버지의 표정과 주변 배경이 여러 해석과 묵상을 하도록 한다. 그림과 더불어 헨리 나우엔의 책 ‘탕자의 귀향’을 통해서 보다 깊은 묵상을 누릴 수 있다.

BEE 소식

- 2022년 “일상을 넘어 쫓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 2022년 위드코로나, 매주 영상을 통해 기도 테이블로 모이는 BEE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와 은혜의 나눔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 2022년도 상반기 OBA와 심화 과정이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는 세미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